



'360년 역사의 모젤 대표 프리미엄 와이너리'

셀바흐 오스터 젤팅거 리슬링 카비넷 트로켄

SELBACH OSTER ZELTINGER RIESLING KABINETT trocken

지역	독일) 모젤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2%	용량	750ml
등급	카비넷 (Kabinett)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프레쉬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리슬링으로 과실 풍미와 상쾌하고 균형잡힌 산도가 인상적이다. 은은한 과실향과 미네랄리티가 잘 어우러지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육류/익힌해산물/생해산물/붉은살생선/흰살생선/채소(샐러드)/익힌채소/부드러운치즈		



제품설명



힘머라이히, 솔로스베르크와 존넨누어 세곳의 젤팅거 빈야드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하며, 주로 힘머라이히에서 재배된 포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포도나무는 양토가 섞인 미네랄이 풍부한 바위 토양에서 재배된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22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4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와이너리



독일 와인 생산의 중심 모젤 지역의 중부 젤티겐(Zeltigen)에 위치한 셀바흐 오스터는 무려 1661년부터 가족경영으로 운영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이다. 전체 약 21헥타르에 달하는 떼루아는 통칭 골든 마일(golden mile)이라 불리는 젤티겐 부터 베른카스텔까지 수평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다. 셀바흐 오스터의 와이너리는 중부 모젤 지역의 특징인 미네랄이 풍부한 슬레이트 토양,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암석이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조하는 포도들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떼루아의 4대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양, 기후, 지형, 인적 요인 모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와인평론가로부터 고평가 받고 있으며, (TBA, BA, 아이스바인의 경우 2020년 R.P / J.S에서 100점 기록) 2020년 와인 앤 스피릿 세계 Top 100 와이너리에 선정되기도 한 모젤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연간생산량은 약 13,000케이스, 전체 생산량의 98%가 리슬링, 2%는 피노 블랑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